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14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73.70원 (+5.30원)

KOSPI

4,692.64 (+67.85, +1.47%)

KOSDAQ

948.98(-0.83, -0.09%)

국고채 10년 금리

3.412(+0.02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금리가 내려가야 스프레드가 내려간다 [김상만]

실전 퀸트 금리를 무시하는 한국 '저평가+실적' 스킴 [이경수]

신흥국 전략 인도 증시 하락 배경과 단기 관전 포인트 [김근아]

기업분석

오이솔루션 2026년은 실적과 주가 동반 상승의 원년이 될 겁니다 [김홍식]

KB금융 과장금 우려만 해소된다면… [최정욱]

HL만도 4분기 일회성 품질비용 예상. 로봇 사업은 2026년 시작 [송선재]

SK하이닉스 거침 없는 실적 상향 [김록호]

CJ제일제당 4Q25 Pre: 바이오 부진 [심은주]

롯데월풀드 4Q25 Pre: 기저 효과 본격화 [심은주]

한국전력 그래도 2026년까지는 좋다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기아, HD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풍산, 금호석유화학, 알테오젠, 에스피지, 기가비스,

오이솔루션

하나증권

2026년 1월 14일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rediVille

금리가 내려가야 스프레드가 내려간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절반의 연초효과와 단기 회사채/여전채에 남은 기회

해가 바뀌면서 일단 연초효과는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적으로 지난주 실시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이면서 회사채에 대한 견조한 대기매수세를 확인시켜주었다. 연말 금리상승 및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 가뭄이 상당기간 진행된 점 또한 수요예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에서도 연말 닫혔던 자금들이 새로이 집행되면서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다만, 올해 연초 시장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반쪽짜리 시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통상적인 상하위등급간의 차별화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만기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 신용스프레드의 변동 또한 그 같은 분위기를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단기물, 특히 1년물의 신용스프레드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경감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만기별 차별화의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작년 말 확대된 시장금리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채권의 경우 일정 부분 캐리수익을 통해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기영역까지 연초효과의 온기가 퍼지려면 어떤 여건이 형성되어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은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의 수준이 어떠한지(즉, 역캐리 또는 순캐리 여부)에 따라 신용스프레드가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24년 말 역캐리 구간(기준금리 > 국고 3년 금리)에 들어간 이후 신용스프레드는 시장금리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절대금리가 낮다 보니 시장금리가 올라주어야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같은 현상은 역캐리 현상이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시장금리 상승세 지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있었기에). 그러나 시장금리 상승이 추세적으로 진행되자 다시 이전의 정(+)의 상관관계로 복귀하였다. 즉,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시장금리의 하락 여부가 신용스프레드 축소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26년 연초효과의 강도는 시장금리의 하락 정도(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대응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지난주 단기 신용스프레드 축소는 섹터별로 큰 차이 없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계를 작년 9월 이후로 넓혀 보면 초우량 대비 우량등급 간에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공사채/은행채의 경우 당시 수준으로 하락 회귀한 반면 회사채/여전채의 경우 아직 연말의 확대 폭을 충분히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형성된 레벨 측면에서 볼 때에도 공사채/은행채가 추가로 내려갈 여지는 커 보이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회사채/여전채 단기구간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공간이 크다. 중기물에 대한 기대가 다소 유보적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의 선택지는 회사채/여전채일 것으로 판단된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jim1@hanafn.com



금리를 무시하는 한국 '저평가+실적' 스킴

실전 퀸트 | 2026.01.14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2020-2025년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본 금리 시나리오별 한·미 스타일 전략

미국은 교과서대로, 한국은 금리 무관 상수 전략인 '저평가 + 실적주' 하이브리드

- 2020-2025년 분기별 기준, 미국 금리 방향성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저PER', '고PER', '저PER + 실적 상향', '고PER + 실적 상향' 팩터의 수익률을 통해 금리 방향성에 따른 스타일 성과 분석
- 미국 시장은 금리 방향에 따라 가치주와 성장주가 교차하는 '교과서적 흐름'을 보인 반면, 한국 시장은 금리 하락기에도 실적개선 고평가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저평가 및 실적 중심의 독자적 흐름' 관찰, 다만 금리 상승기에 저평가 실적주는 폭발적인 성과 기록
- 시나리오 1. 금리(이하 미국 10년물 기준) 상승기: 압도적 승자는 '저PER + 실적 상향'
- 금리가 오를 때는 한·미 모두 '현재 돈을 잘 벌면서 전망도 좋은 기업'이 시장을 지배
- 미국 시장: 저PER주에 실적 상향(이하 OP 3M 기준) 팩터가 더해질 때 성과(이하 롱-숏, 분기 평균 수익률)가 +3.3%로 높아 가치주 하 실적주 장세
- 한국 시장: 동일한 전략(저PER + OP 3M)의 성과가 +6.5%으로, 미국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초과 수익을 기록
- 결국, 금리 상승기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 저PER 팩터 긍정적, 특히 저PER+실적 상향(OP 3M)이 강력한 알파 창출, 또한 한국의 저평가 + 실적주의 매우 강한 성과 인상적
- 시나리오 2. 금리 하락기: 미국 고평가주(성장주) 성과 개선, 한국은 고평가주 성과 크게 부진(오히려 저평가+실적주 유리)
- 통상 금리 하락은 성장주(고PER)에 호재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 데이터는 다른 진실을 이야기 함
- 미국: 금리가 내리면 미국 고PER주(+0.6%)와 실적 상향이 동반된 고PER주(+1.4%)가 유리한 교과서적 흐름
- 한국: 금리가 내려가면 고PER주(+0.4%)가 소폭 성과를 보이지만 실적상향 고PER주(-26.7%)는 처참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 한국 실적주는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호재보다 '경기 둔화'라는 펀더멘탈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또한 기본적으로 금리 하락 시기에 시장 상승으로 코스피를 이기는 팩터가 매우 제한적
- 금리 하락에도 한국 저PER(가치주) + 실적 상향 팩터가 +0.7%로 소폭 상승을 기록
- 시나리오 1.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금리가 반등 가능성,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저평가 + 실적주가 정답
- 시나리오 2. 만약 트럼프 정부의 기준금리 압박이 성공한다는 가정에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미국은 실적 기반의 고밸류 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 한국은 그럼에도 저평가 + 실적주가 정답일 것(어떤 팩터도 시장 이기기 어렵다는 과거 통계, 고PER도 부담)
- 시나리오 3(금리 방향성 횡보 및 블랙박스 혼란). 미국은 Only 실적주, 한국은 저평가 실적주 관심
- 한국 저평가 실적주 Top 10으로 SK, LG, 기업은행, LG전자, S-Oil, 한국금융지주, 한국전력, 신한지주, 현대차, 삼성전자 제시

2026년 1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인도 증시 하락 배경과 단기 관전 포인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증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단기 조정 국면 진입

인도 증시는 연초 사상 최고치(1/2, 26,328.5pt)를 기록한 이후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2일 기준 NIFTY50 지수는 전고점 대비 약 2% 하락했다. FY2026년 3/4분기(2025년 10~12월)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NIFTY50 구성 종목들의 완만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관세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시간 순으로 앞선 이슈인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의 경우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글로벌 1% 미만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단기 유가 및 인도 경제 전반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며, 증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베네수엘라산 원유 생산이 확대될 경우 중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어 원유 수입 의존도(88%)가 높은 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능할 여지도 있어 수입원 다양화 측면에서 우호적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릴라이언스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재수입을 위해 미국 허가 승인을 추진 중이다. 상기 요인들을 감안하면 인도 증시 급락의 주된 원인을 베네수엘라 이슈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최근 변동성을 키운 핵심 요인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이다. 동 법안은 2025년 7월 발간 자료에서도 언급했던 법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대해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4월 상원 8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발의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H.R.2548이 제출된 상태다. 법안 발의 이후 절차상 진전은 없는 상태이나, 트럼프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승낙했다는 보도와 미 상무장관의 발언(모디 총리와의 통화 부재로 협상이 멈췄다는 취지)이 맞물리며 미·인 관세 협상 리스크가 재부각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기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여러 시나리오 중 전면 무효 또는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절충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며 투자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관세로 인해 부담이 가중됐던 인도에 대한 과도한 경계 국면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해당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우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된 러시아 제재 법안은 정식 입법 트랙을 거치는 사안인 바, 대법원 판결이 관련 리스크까지 직접적으로 제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무효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과거처럼 관세가 즉흥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① 대법원 판결의 범위, ② 무효 결정 시 행정부의 우회 카드 가시화 여부, ③ 러시아 제재 법안 트랙의 실제 진전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BUY (신규)

목표주가(12M)	30,000원
현재주가(1.13)	14,43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48.98
52주 최고/최저(원)	16,290/7,890
시가총액(십억원)	168.5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1,875.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81.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
외국인지분율(%)	7.70
주요주주 지분율(%)	
박찬 외 3 인	24.2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57.4	N/A
영업이익(십억원)	(15.0)	N/A
순이익(십억원)	(15.8)	N/A
EPS(원)	(1,463)	N/A
BPS(원)	5,327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6.0	32.0	57.2	120.9
영업이익	(31.1)	(30.4)	(12.8)	7.7
세전이익	(29.5)	(32.0)	(14.4)	6.5
순이익	(33.8)	(33.1)	(14.4)	5.0
EPS	(3,183)	(3,118)	(1,335)	420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4.04)	(3.35)	(10.81)	34.36
PBR	1.19	1.34	2.47	2.34
EV/EBITDA	(5.72)	(5.55)	(23.31)	14.63
ROE	(26.11)	(35.71)	(21.53)	8.00
BPS	10,839	7,758	5,837	6,160
DPS	10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2026년 01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오이솔루션 (138080)

2026년은 실적과 주가 동반 상승의 원년이 될 겁니다

오이솔루션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오이솔루션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30,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매수 추천 사유는 1) 2026년부터 국내외에서 주파수 경매가 재개됨에 따라 2019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 실현이 전망되고, 2) 미국의 중국 경제 정책이 광트랜시버 부문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며, 3) 광트랜시버 핵심 부품인 레이저 다이오드 칩 내재화에 성공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부품 솟티지 발생시 공급 우위를 점할 수 있고, 4) 현재 PBR 2.x배로 2019년 5G 호황 시기 PBR 5배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국내외 피어보다도 낮아서 멀티플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다. 01/13일 주가 기준 상승 여력 2배 이상으로 판단한다.

광트랜시버 핵심 부품 내재화 성공, 주파수 경매 시작되면 저력을 보여줄 것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 핵심 부품인 레이저 다이오드 칩 내재화에 성공했다. 레이저 다이오드 칩은 개발과 양산이 어려워서 고가인데, 단일 매입액만으로 전체 원자재 매입액의 40%를 차지하여 이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이솔루션은 일본 SI향 FTTH 제품에 자체 칩을 사용하고, 삼성전자향 제품에도 자체 칩을 사용한 바 있어 기술력이 실증됐다. 향후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될 경우 자체 칩을 사용하여 이익률 향상과 원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 당시 장비 수요 급등으로 칩 솟티지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칩 조달이 가능한 오이솔루션이 장비 수요를 독점 가능한데, 기존 레퍼런스인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을 통해 미국내 대규모 무선향 트랜시버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 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신장비 주도주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급등합니다. 늦기 전에 매수하세요

통신장비 섹터 주도주들은 주파수 경매 시기에 맞물려 멀티플이 폭발적으로 확장한다. 오이솔루션 역시 과거 주가 추이, 실적 양상 및 경쟁력을 보면 섹터내 주도주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2019년 5G 호황기 당시 오이솔루션 PBR이 5배까지 올랐고, 이번 주파수 경매 때도 주도주에 걸맞는 멀티플 상승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확정된 대형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고 오이솔루션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은 2.x배로 저평 가된 상황이다. 2026년에 미국과 국내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PBR 5배 수준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2026년 FWD BPS 6,160원에 타겟 PBR 5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30,000원을 산출했다. 더욱이 LD칩 내재화에 성공했고 중국산 트랜시버 퇴출이 진행 중인 점 감안하면 멀티플 확장 잠재력은 더욱 크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69,000원(상향)
현재주가(1.13) 60,4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692.64
52주 최고/최저(원)	65,400/32,650
시가총액(십억원)	2,836.2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46,957.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37.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1.3
외국인지분율(%)	13.52
주요주주 지분율(%)	
에이치엘화이드 외 4 인	30.26
국민연금공단	13.0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491.3	10,145.9
영업이익(십억원)	388.0	456.6
순이익(십억원)	164.2	272.7
EPS(원)	2,930	5,025
BPS(원)	53,683	58,218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393.1	8,848.2	9,461.5	10,004.3
영업이익	279.3	358.8	364.2	429.7
세전이익	225.7	265.5	229.3	381.5
순이익	135.6	129.9	126.5	232.5
EPS	2,887	2,767	2,695	4,952
증감율	37.94	(4.16)	(2.60)	83.75
PER	13.63	14.69	21.78	12.20
PBR	0.83	0.76	1.06	1.01
EV/EBITDA	5.74	5.25	6.28	5.40
ROE	6.18	5.47	4.93	8.57
BPS	47,505	53,635	55,630	59,882
DPS	600	700	700	7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2026년 1월 14일 | 기업분석

HL만도 (204320)

4분기 일회성 품질비용 예상. 로봇 사업은 2026년 시작

목표주가를 6.9만원으로 상향

HL만도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 가운데, 목표주가를 기존 6.2만원에서 신규 6.9만원으로 상향한다. 로봇/SDV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업종 전반적인 Valuation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여 목표 P/E를 14배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준비 중인 로봇 액츄에이터 사업은 본격적인 매출화가 2028년부터 진행되겠지만, 마스터 모델의 완성과 연관 수주가 2026년 중으로 발생하면서 Valuation Multiple이 상향되는 과정이 반영될 것이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업체들이 특정되지 않아 수주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기계 기술에 대한 이해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이미 구축된 생산시설/밸류체인 등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이 Valuation 상승의 근거로 작용할 것 이란 판단이다. 한편, 2025년 4분기 실적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방 고객사들의 생산둔화 및 일회성 품질비용의 발생 등으로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4Q25 Preview: 영업이익률 3.5% 전망

HL만도의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2%/-22% (YoY) 변동한 2.47조원/867억원(영업이익률 3.5%, -1.1%p (YoY))으로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방 고객사들의 생산이 부진하면서 물량은 둔화되지만, 인도/중국/유럽에서 로컬OE 위주로의 납품과 미국 내 현대차 신공장 및 HEV 효과 등으로 만회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출 물량에 대한 환율 상승 효과도 더해지면서 매출액은 기대에 부합할 것이다. 반면, 영업이익은 22% (YoY)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1.1%p (YoY) 하락하면서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전장품의 비중 상승과 환율 상승은 긍정적이겠지만, 물량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미국 관세 비용이 반영될 것이다. 또한, 기대했던 완성차로부터의 관세 비용 보전 중 일부가 2026년 1분기로 이연되고, 일회성으로 품질 비용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외에서는 중국 아이모션에 대한 금융자산평가손실(50억원, 주가 23%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로봇 액츄에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 수주 활동 시작

HL만도는 지난 12월 CEO Investor Day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액츄에이터 사업을 제시했다. 이미 로봇 액츄에이터에 대한 선행 개발을 진행해 왔고, 2026년 중 제품에 대한 검증 및 마스터 모델을 완성하여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수주는 확정할 수 없지만, 마스터 모델로 제품화 역량을 보인다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에는 수주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수주가 결정되면 ‘고객별 양산화 모델 작업-공장 건설-시범 생산’ 등을 거쳐 2028년 북미에서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HL만도는 기존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핵심 정밀요소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로봇 액츄에이터로 확대 적용할 수 있고, 로봇 부품 양산에 있어 필수적인 양산 품질 기술력도 뛰어나며, 기존 자동차 부품 고객들 중 일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객 접근성도 갖추고 있는 등 로봇 밸류체인에서 진입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1,120,000원(상향)
현재주가(1.13) 738,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692.64
52주 최고/최저(원)	756,000/164,800
시가총액(십억원)	537,265.7
시가총액비중(%)	13.86
발행주식수(천주)	728,002.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135.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413.8
외국인지분율(%)	53.79
주요주주 지분율(%)	
에스케이스퀘어 외 7 인	20.07
국민연금공단	7.3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4,524.3	153,580.6
영업이익(십억원)	43,831.2	88,914.2
순이익(십억원)	39,797.9	71,301.2
EPS(원)	54,848	98,599
BPS(원)	162,471	259,807

Stock Price



투자지표	(십억원, %, 배, 원)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2,765.7	66,193.0	96,941.5	180,872.9
영업이익	(7,730.3)	23,467.3	45,384.6	112,183.1
세전이익	(11,657.8)	23,885.4	50,317.0	113,023.2
순이익	(9,112.4)	19,788.7	41,703.3	91,548.8
EPS	(12,517)	27,182	57,285	125,753
증감율	적전	흑전	110.75	119.52
PER	(11.30)	6.40	11.36	5.96
PBR	1.85	1.66	4.09	2.65
EV/EBITDA	21.53	3.87	7.96	3.78
ROE	(15.61)	31.06	44.45	57.70
BPS	76,616	104,567	159,162	282,612
DPS	1,200	2,204	2,429	2,429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2026년 01월 14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SK하이닉스 (000660)

거침 없는 실적 상향

4Q25 Preview: 메모리 가격 상승폭 확대

SK하이닉스의 25년 4분기 매출액은 32.6조원(YoY +65%, QoQ +33%), 영업이익은 17조원(YoY +115%, QoQ +52%)으로 전망한다. 메모리 가격의 전분기대비 상승폭은 DRAM이 22%, NAND가 28%로 가정했다. DRAM 가격의 상승폭이 동종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는 HBM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있고, 가격 기저가 동종업체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DRAM 가격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HBM 매출비중이 기존 40%에서 36%로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6년의 DRAM 내 HBM 매출 비중도 전년대비 축소된 32% 내외로 추정된다.

2026년 영업이익 112조원 전망

SK하이닉스의 2026년 매출액은 180.9조원, 영업이익은 112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7%, 147% 증가할 전망이다. 25년 4분기에 이어 26년 1분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6년 연간 DRAM 가격은 54%, NAND는 55% 상승할 것으로 가정 한다. 스마트폰, PC 고객사들이 원가 부담으로 인해 출하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지만, 강한 서버량 수요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객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향후 2~3년에 걸쳐 논의 중인 것은 싸이클의 장기화 및 실적 가시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적 상향 반영해 목표주가 상향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8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조정은 2026년 영업이익을 기존 77조원에서 112조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며, 일반 DRAM 및 NAND의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HBM 관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최근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상향 조정폭보다 목표주가의 상향폭이 제한적이다. 다만, HBM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HBM4의 물량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공시한 HBM 후공정 라인 증설도 중장기 외형 성장 측면에서 가시성을 더해주는 이벤트다. 아울러 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 주주환원의 업사이드도 배제할 수 없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1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300,000원(하향)
현재주가(1.13) 212,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692.64
52주 최고/최저(원)	269,500/203,000
시가총액(십억원)	3,191.5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15,054.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7.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5
외국인지분율(%)	13.50
주요주주 지분율(%)	
CJ 7 인	45.50
국민연금공단	7.81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9,338.2	29,750.3
영업이익(십억원)	1,337.7	1,419.3
순이익(십억원)	520.5	634.3
EPS(원)	20,864	28,505
BPS(원)	491,324	512,430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9,023.5	29,359.1	28,957.3	27,901.4
영업이익	1,291.6	1,553.0	1,315.2	1,264.1
세전이익	732.0	610.5	749.5	682.5
순이익	385.9	148.2	327.0	340.0
EPS	23.559	9.046	19.963	20.755
증감율	(35.24)	(61.60)	120.68	3.97
PER	13.75	28.24	10.42	10.12
PBR	0.73	0.53	0.42	0.41
EV/EBITDA	6.77	5.98	6.10	5.99
ROE	5.55	1.97	4.10	4.14
BPS	442,682	486,140	500,231	515,113
DPS	5,500	6,000	6,000	6,0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진경 cgko@hanafn.com

CJ제일제당 (097950)

4Q25 Pre: 바이오 부진

4Q25 Pre: 시장 기대 하회 전망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7조 721억원(YoY -5.6%), 2,824억원(YoY -25.2%)으로 추정한다. 물류 제외한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3조 9,188억원(YoY -12.4%), 1,324억원(YoY -39.8%)으로 예상한다. 4분기는 F&C 매각에 따른 실적 미반영으로 베이스 부담이 존재한다. 이를 차치해도, 국내 소비 부진 및 라이신 등 주요 아미노산 판가 약세 흐름이 실적에 부담이다. 시장 기대 하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국내 가공 매출은 명절 시점 차이 및 내수 부진 기인해 YoY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제한적 탑라인 성장과 더불어 일부 원가 상승 부담(돈육, 쌀 등)이 상존한다. YoY 수익성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② 해외 가공 매출은 YoY 7.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달려 기준 매출 성장은 3% 내외로 추산된다. 미주는 적극적인 영업 확대를 통해 만두 및 디저트 카테고리에서 견조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및 일본도 GSP 중심으로 한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③ 바이오는 실적 부진이 이어지겠다.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YoY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동안 이익 기여도가 높았던 트립토판 및 스페셜티(알린, 알지닌 등) 판가가 QoQ 하락하면서, 절대 이익 규모도 전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경쟁사의 Capa 증설과 더불어, 최근 대두 가격 약세도 라이신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미노산 판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올해 식품은 증익, 바이오는 감익 추산

올해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27조 9,014억원(YoY -3.6%), 1조 2,641억원(YoY -3.9%)으로 추정한다. 물류 제외한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5조 6,468억원(YoY -8.7%), 7,371억원(YoY -9.7%)으로 예상한다. 4Q25부터 F&C 부문 실적이 미반영되면서 역 기저가 존재한다. 동일 기준을 적용시, 물류 제외 영업이익은 전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한다. ① 국내 식품 부문은 기저 및 곡물 투입가 하락 기인한 영업마진 개선이 기대된다. ② 해외 가공 부문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견조한 탑라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③ 바이오는 현재 시황 감안시, 연간으로는 매출 및 영업이익 YoY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 의지 및 대두 가격 전망 등 감안시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 된다.

단기 실적 부진 아쉬워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한다. 대내외 사업 환경 감안하여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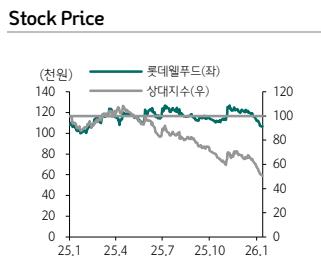
2026년 1월 14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
현재주가(1.13)	106,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692.64
52주 최고/최저(원)	126,600/99,900
시가총액(십억원)	992.8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9,304.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9
외국인지분율(%)	13.36
주요주주 지분율(%)	
롯데지주 외 12 인	68.57
국민연금공단	7.21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4,220.0	4,392.2
영업이익(십억원)	141.5	191.1
순이익(십억원)	88.5	116.2
EPS(원)	9.969	12.893
BPS(원)	247,218	256,948



투자지표	(십억원, %, 배, 원)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066.4	4,044.3	4,210.3	4,378.1
영업이익	177.0	157.1	134.6	172.5
세전이익	109.8	107.8	122.0	138.8
순이익	70.5	84.6	92.7	106.8
EPS	7,476	8,969	9,913	11,477
증감율	26.05	19.97	10.53	15.78
PER	16.56	12.44	11.56	9.26
PBR	0.56	0.49	0.48	0.43
EV/EBITDA	5.48	5.65	5.90	4.94
ROE	3.46	4.04	4.28	4.77
BPS	220,199	228,737	238,756	247,097
DPS	3,000	3,300	3,300	3,3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진경 cgko@hanafn.com

롯데웰푸드 (280360)

4Q25 Pre: 기저 효과 본격화

4Q25 Pre: 기저효과 시작되나 시장 기대는 다소 높아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41억원(YoY 4.5%), 146억원(YoY 흑자전환)으로 추정한다. 4Q24 통상임금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큰 폭 적자 시현했으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카카오 등 주요 원자재 원가 부담이 4Q까지는 이어지며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① 국내(건과+빙과+베이커리) 매출은 YoY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적은 영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과 판가 인상 효과 및 건빙과 신제품 판매가 주효한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 투입 경감 효과는 2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푸드 매출은 전년수준을 예상한다. 유지는 전년 베이스가 낮으나, 유가공 및 HMR 매출 감소 추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③ 해외 제과 매출액은 YoY 1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 연간 해외 매출은 YoY 13% 성장이 전망된다. ‘롯데’ 브랜드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YoY 두 자리 수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카자흐스탄의 매출 회복과 더불어, 인도 건과 및 빙과가 YoY 두 자리 수 성장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저효과 및 해외 견조한 성장 기대

2026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3,781억원(YoY 4.0%), 1,725억원(YoY 28.2%)으로 추정한다. 작년 반영된 일회성 비용 약 200억원 감안시 ① 2Q26부터 기저효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② 카카오 투입 부담 경감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도 기대된다. ③ 해외는 YoY 두 자리 수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카자흐스탄 실적 회복이 가시화된 가운데, 인도 합병 법인 시너지도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적 모멘텀 확대 구간

올해는 실적 회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9배 거래 중으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2026년 1월 14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65,000원
현재주가(1.13)	55,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692.64
52주 최고/최저(원)	55,700/20,150
시가총액(십억원)	35,757.4
시가총액비중(%)	0.92
발행주식수(천주)	641,964.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556.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9.3
외국인지분율(%)	23.50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외 2 인	51.11
국민연금공단	7.9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7,679.4	99,481.6
영업이익(십억원)	14,824.2	17,606.3
순이익(십억원)	9,005.0	11,003.4
EPS(원)	13,750	16,851
BPS(원)	74,646	89,838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8,219.5	93,398.9	96,904.2	97,363.9
영업이익	(4,541.6)	8,364.7	14,815.7	17,486.4
세전이익	(7,554.0)	5,256.5	12,696.2	14,834.5
순이익	(4,822.5)	3,491.7	9,058.0	11,125.9
EPS	(7,512)	5,439	14,110	17,331
증감율	적지	흑전	159.42	22.83
PER	(2.52)	3.69	3.35	2.94
PBR	0.34	0.32	0.63	0.56
EV/EBITDA	16.95	6.48	5.48	4.81
ROE	(12.63)	9.22	20.52	20.89
BPS	55,837	62,177	75,380	90,521
DPS	0	213	2,190	2,3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한국전력 (015760)

그래도 2026년까지는 좋다

목표주가 6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국전력 목표주가 6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SMP가 100원/kWh를 하회하며 원가 절감 효과가 극대화된 가운데 산업용 수요 감소는 다소 아쉬운 지점이다. 유가와 환율 등 주요 실적 관련 지표는 아직 우호적인 구간에 머물고 있으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2월 발표될 배당 공시에서 배당성향이 높게 산정된다면 2026년 실적 개선과 그에 따른 DPS 추가 상향 여지에 기대감을 부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PER 2.9배, PBR 0.6배다.

4Q25 영업이익 3.3조원(YoY +35.4%) 컨센서스 부합 전망

4분기 매출액은 23.2조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기저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산업용 판매실적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3.3조원으로 전년대비 35.4% 증가가 예상된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각각 4.3조원, 7.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4%, 10.0% 감소로 추정된다. 연료비는 평균 환율은 상승했지만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구입전력비는 기저발전 이용률 부진에 구입전력량이 증가 하지만 SMP 약세로 구입단가가 하락하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발전소 이용률은 45.7%로 2.0%p 상승, 원전 이용률은 75.0%로 전년대비 11.8%p 하락할 전망이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주요 자회사의 총당부채 설정액 규모다. 한수원의 총당부채 설정액은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연간 5~6천억원 규모였지만 2025년 분기 평균 5천억원 수준을 상회했다. 지속 여부에 따라 기저효과 또는 추정치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신규 원전 가동으로 2026년까지 비용 개선 지속

2022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9개월 중 31개월 동안 산업용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다. 산업용 수요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겠지만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수요 이탈 추세도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는 2025년 10월부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재, 환율, 전력 Mix와 일회성 요인 유무에 따라 실적이 결정된다. 적어도 2026년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이익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은 재차 부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저가 높아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Mix는 상반기 고리 2호기 재가동과 하반기 새울 3호기 신규 가동으로 태안 1호기 폐쇄와 재가동 심사로 정지된 원전의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 가능하다. 체코 원전의 경우 착공 예정인 2029년부터 공정 진행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동반 우상향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UAE도 실적 인식 9년차에 들어서야 누적 손익의 방향성이 바뀐 점을 감안하면 다소 오랜 기간에 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2	139,000	137,600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기아 (000270.KS)	1/12	133,200	136,000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이익 개선 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1/12	848,000	886,000	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중장기 전력부하 증가 및 노후교체 등으로 송전 투자 확대 지속 미국 전력인프라 이외 유럽, 한국 등지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본격화
현대로템 (064350.KS)	1/12	219,000	232,000	5.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루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체결로 26년, 27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높아짐 플랜사업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그룹 관계사 매출 비중 확대 긍정적
풍산 (103140.KS)	1/12	120,900	126,600	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Q25 Preview 매출액 1.5조원(YoY +19.8%), 영업이익 1,013억원(YoY +199.0%) 전망 1분기 동가격 상승으로 영업실적 호조 지속 전망
금호석유화학 (011780.KS)	1/12	121,700	138,700	1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석유화학 시황에서 부타디엔과 MDI 가격 동반 강세 보이며 업황 개선 시그널 확인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및 지분법 이익(금호미쓰이화학) 기대
알테오젠 (196170.KQ)	1/12	511,000	477,500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하주사 전환에 대한 니즈가 트와 편의성 개선, 바이오시밀러 방어의 이유로 증가 중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공장 증설에 따른 제품 수익 증가 기대
에스피지 (058610.KQ)	1/12	79,000	91,000	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정밀기계부품인 유성/SR감속기를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 미국 주요 로봇 메이커의 4족 보행로봇에 에스피지의 유성감속기 적용 시작
기가비스 (420770.KQ)	1/12	33,350	40,050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FCBGA 종설 투자 사이클 진입에 따라 장비 수요 증가 전망 26년부터 통합형 FA 설비 및 컬러 AOI 출하가 본격화되며 ASP 우상향 기조
오이솔루션 (138080.KQ)	1/12	15,220	14,430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함께 고속 광트랜시버 수요 구조적 확대 기대 매출 믹스 전환과 일본 스미토모 구조 변화에 대한 수혜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28%	+2.97%p	+14.61%	+3.7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기아 (000270.KS)	1/12	133,200	136,000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이익 개선 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벤류업 기대
HD현대중공업 (329180.KS)	1/12	609,000	645,000	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선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상선 선종 Mix 개선 현재 진행 중 미 해군 입찰 시스템 변경을 시작으로 해외 조선소 건조 여지 방안 확대
에스피지 (058610.KQ)	1/5	82,700	91,000	1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정밀기계부품인 유성/SH/SR감속기를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 미국 주요 로봇 메이커의 4족 보행로봇에 에스피지의 유성감속기 적용 시작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37,600	1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738,000	1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1/2	1,695,000	1,908,000	1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주 기반으로 5공장 안정적인 ramp-up, 1분기 초 6공장 증설 계획 발표 예상 1월 12~15일 개최되는 JPM healthcare에서 향후 사업전망 main track에서 발표 예정
KB금융 (105560.KS)	1/2	124,700	128,500	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여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2026년에도 추정 순익 약 5.9조원 내외를 기록하면 종의 추세 굳건히 지속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2	255,000	289,000	1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2	330,000	332,000	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S, 26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57,300	3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성 비용 부재와 원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2	161,700	171,400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S-Oil (010950.KS)	1/2	83,000	87,800	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11%	-0.75%p	+10.11%	-0.7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1	1.12	1.13	1.14	1.15	1.16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1월 BoP 경상수지 (3.7조엔, 10월 2.8조엔) ■ 미국 12월 전년대비 CPI/Core CPI (E --/2.70%, 11월 2.70/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1월 전월대비 소매 판매(E 0.40% / 0.00%) ■ 미국 11월 전년대비 전 월대비 PPI(E 2.60%, 0.30%) ■ 한국 1월 실업률(E --,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주 1월 제조업 지수(E --, 12월 -3.9p) ■ 일본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전월대비 광공업생산 (E --, 11월 0.2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4분기 전년대비 GDP (E 4.4%, 3분기 이전치 4.8%) ■ 일본 11월 전월대비 광공업생산 (E --, 10월 -2.6%) ■ 유로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CPI (E --/--, 11월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주택착공건수 (E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 이전치 --) ■ 한국 4분기 전년대비 GDP 성장률 (E --, 3분기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월 소비자심리지수 (E --, 12월 109.9p) ■ 일본 12월 전년대비 CPI (E --, 1월 2.9%) 	

주: 1) 갤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시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일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일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시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